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정무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9월30일(월)

장 소 정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상정된 안건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1

(15시35분 개의)

○위원장 윤한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정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은 10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25일까지 19일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의결하는 사항은 일반증인 32명, 참고인 2명으로 각각 출석요구일에 국정감사장으로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시간은 국정감사의 질의 시간을 참고해서 각자의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사정 등을 감안해서 오후 3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국정감사를 위하여 신청한 위원이 사정변경 등으로 철회를 요구하거나 출석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가요?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으신가요?

○권성동 위원 그러면 의결하고……

○신장식 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아니아니……

○한창민 위원 아니, 의사진행발언 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안 돼 가지고……

○박상혁 위원 의결하기 전에.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권성동 위원 나중에 하면 되지, 의사진행발언은.

○신장식 위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잠깐만요.

○박상혁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이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순서대로, 순서대로……

○조승래 위원 안건에 대한 토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신장식 위원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차례대로 손 들어 보세요. 제가……

많으시네.

그러면 1분씩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여기서부터……

○조승래 위원 1분 가지고 안 되지요.

○신장식 위원 1분 너무 적습니다.

○조승래 위원 2분 주세요, 2분. 1분 가지고는 안 돼요.

○위원장 윤한홍 아니, 차례대로 가면 비슷해요.

○조승래 위원 1분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해.

○위원장 윤한홍 김남근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1분 드리세요.

○김남근 위원 국민권익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증인 채택 표에 의하면 증인도 참고 인도 지금 한 명도 채택이 안 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공익 제보자 보호 문제에 관한 증인하고 참고인을 신청했는데, 공익제보자야말로 국민권익위가 하는 부패방지 행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의 하나인데 지금 많은 공익제보자들이 소송을 당하는 등 많은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 국민권익위가 전혀 보호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하고 참고인을 신청했는데 한 명도 채택이 안 됐습니다.

채택이 안 된 이유를 들어 보니까 참여연대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가 공익 활동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공익제보자 활동인데 참여연대 출신이 공익제보 활동을 한다 그래서 참여연대 부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국민권익위에 대한 국정감사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지금 상태에서, 이런 걸 전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다음에 이쪽에……

○신장식 위원 같은 취지의 말씀을 먼저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한홍 여기 차례대로 할게요.

존경하는 김용만 위원님 하세요.

○**김용만 위원** 저희가 국회가 시작하고 이제 한 120일이 지났는데요.

정무위에서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많은 질의가 오갔는데 저희가 8월 14일에 독립기념관을 방문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도, 그날 외부 법무 검토를 받아서 외부 검토 결과에도 자료를 줘야 된다는데 아직까지도 자료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 채택에 있어서도 임추위원장이었던 오영섭 씨를 지금 요청드리고 있는데 이분도 증인 채택을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립기념관장도 그렇고 지금 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 인선에 있어 가지고 절차에 하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료도 안 주고 증인으로도 안 나오고, 그러면서 절차는 맞았다 그러고.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오영섭 임추위원장은…… 지금 7명을 요청했는데 안 오는데요, 오실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한홍** 다음, 민병덕 위원님.

○**김현정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김현정 위원님.

○**김현정 위원** 지금 OK저축은행 대표이사만 증인으로 채택돼 있고 정작 중요한 증인인 회장이 빠져 있는데요. 제가 이 관련해서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일본계 대부업체가 한국의 저축은행을 인수해 가지고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부 유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관계에서 한국의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근로로 인해 가지고 파업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것의 핵심 증인이 회장인데 마치 사장 불러 가지고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를……

대주주 적격성 문제도 대단히 심각합니다. 일본계 대부업체가 한국의 저축은행을 인수해 가지고 한국의 시중은행, 대구은행을 인수하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의 심각성도 있는데다가 지금 노조가 이것 관련해서 3년째 투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OK저축은행 그룹 최윤 회장의 증인 신청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민병덕 위원님.

○**민병덕 위원** 공익제보를 하면 가족이 다 망하고, 자기 인생도 가족도 다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공익제보 신청한 사람은 보험대리점과 관련해서 불법을 제보해 가지고 5년 전부터 이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정쟁과 관련된 거라고 이걸 안 해 줘니까? 송영일 공익제보자하고 딱 그 건인 김경윤 글로벌금융판매 총괄대표 이걸 안 해 주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공익제보는 다 안 되는 겁니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아니요, 나는 지금 간사 간에 합의된 내용만 듣고 있지요.

○**민병덕 위원** 그러니까 이것 안 하면 권익위원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안입니다.

지금 방심위라든지 이런 거랑 전혀 관계없는, 공익제보를 하면 자기 인생도 망하고 가족들도 망한다. 이 건을 가지고 권익위를 안 조지면 언제 조집니까, 우리가?

○**위원장 윤한홍** 뭘 조집니까. 위원님, 표현을 좀……

다음, 이어서 박상혁 위원님.

○**박상혁 위원**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 증인 신청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해 오신 것인데,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승윤 부위원장이 사퇴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질의를 했더니 일신상의 개인정보기 때문에 답변을 주지 않는다는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오후에 이분이 사퇴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이분은 기관증인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분의 신청은?

저는 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갑자기 탄핵을 앞두고 있다가 도망가는 사람, 청문회를 하다가 도망가는 사람, 왜 이렇게 도망자들이 많습니까, 이 정부는?

저는 정승윤 씨가 사퇴가 됐다면 반드시 일반증인으로 나와서 국감에서 여러 가지 김건희 여사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것이고 또다시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한 비상임 권익위원들 반드시 신청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제대로 된 국감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는 데 강력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다음, 이어서 유동수 위원님.

○**유동수 위원** 지금 증인 협상 과정에 서로 여야 간에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종감 증인으로 돼 있는 10월 24일 증인 네 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증인 협상 과정에서 좀 추가 되고 또 삭제될 증인들이 있다면 그때 정리해 주면 어떨까, 오늘 의결에서 빼고.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강일 위원님.

○**이강일 위원** 이강일입니다.

약간 여야가 치밀하게 경쟁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증인인데요.

제가 배달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배달의민족·쿠팡이츠·쿠팡 대표이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티몬·위메프 대표이사 죄 불러서 만나 가지고 상생 협의 끌어내고 방안 서로 논의 했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만 답변이 없고 뒤로 들리는 얘기가 ‘나 국감 안 나간다. 걱정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들리는 사람에 대해서 증인 채택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예요. 제가 백종원 대표를 두들겨 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불러다가 상생을 협의하고 상생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려고 증인으로 부르려는 거니까, 이 사람이 증인 채택 안 되는 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것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

큐텐그룹과 관련돼 가지고 증인 신청이 2명 다 돼 있는데 이번 티메프 사태와 관련돼 가지고 SC제일은행이 좀 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든 금감원이든 둘 중에 한 군데서 불러야 되는데 전혀 증인 채택이 안 되어 있어요.

이 2건만 양당 간사님께서 협의해서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쪽 라인에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지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나중에 하시겠어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존경하는 신장식 위원님.

○**신장식 위원**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감사 하지 말자는 얘기입

니까? 증인도 참고인도 아무도 없어요.

왜 그러는지 이해는 합니다.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공익 제보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공익제보자 문제 다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쿠광에서 블랙리스트 공익제보하신 분, 김준호 참고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공익제보자인지 아닌지 결정도 안 하고 있는 사이에 압수수색당하고 지금 형사 수사받고 있어요.

더군다나 방심위에서 공익제보하셨던 분들 수사기관 이첩했지 않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제보자 바꿔치기 했습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김혜경 여사 법카 사건 공익제보한 분은 한 달도 안 돼서 신변보호 조치까지 다 받았어요.

이렇게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증인도 참고인도 한 명도 없이 국정감사를 하자는 것은 국정도 없고 감사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봉어빵에 봉어는 없지만 봉어 모양이라도 있어요. 여기도 국정감사 모양이라도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한창민 위원님.

○한창민 위원 저희 왜 국정감사하지요? 국민들의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밝혀 내기 위해서 필요한 증인들을 불러서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 우리 정부위의 증인 채택 기준이 뭐니까?

이건 정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보호도 좋고요 정권에 부담되는 인물들 증인 채택 안 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그걸 더 앞서가는 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개개인별로 위원님들이 다 증인·참고인 채택 요청했을 겁니다. 거기에서 왜 선별하지요. 꼭 필요해서 부르는 증인들 아닙니까? 다 받아들이셔야지요. 한 명 한 명 해 가지고 협상하고, 이게 웬 말입니까. 왜 이걸 여야 간사가 협상을 하고 거기에서 다 배제를 하지요?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여기에서 증인 채택되지 않은 분들이 최대한 증인 채택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확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저는 7번의 금융위 국감 증인 KB국민은행 은행장을 KB금융그룹 양종희 회장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실제로 이 내용은 인도네시아에 KB가 투자를 하고 자본잠식, 영업손실 등 수조 원대의 손실이 났고 그로 인해서 국부가 유출된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장은 그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투자 결정 권한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어떤 걸 물어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투자 결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양종희 회장을 증인으로 변경해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이어서 강민국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시겠어요?

○강민국 위원 저는 한 2분만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답변을 해 드려야 돼서.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충분히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감사는 사실 국가의 국정을 감사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정쟁은 최대한 배제하고 우리 정무위만큼은 민생에 집중하자고 사실 우리 여야가 합의를 봤던 사항입니다.

○조승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2분 주는 거예요?

○강민국 위원 얘기 좀 합시다.

○조승래 위원 여기는 왜 2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편파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윤한홍 이야기 다 듣고 하세요.

○강민국 위원 아니, 조승래 위원님, 얘기 중이지 않습니까. 선수도 초선도 아닌 분이 왜 그래요?

○조승래 위원 아니, 운영을 그렇게 편파적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1분씩 발언 주고 2분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강민국 위원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강민국 위원 발언 중이잖아! 선수도 초선도 아니면서 왜 그래요?

○조승래 위원 왜 그렇게 반말하고 그러세요? 왜 반말하고 그러세요?

○강민국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조승래 위원 제가 위원장한테 항의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1분 주고 누구는 2분 줘니까?

○강민국 위원 아니, 지금 동료 위원 이야기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조승래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1분. 1분 발언하세요.

○위원장 윤한홍 그게 아니고요.

○조승래 위원 왜 2분을 주세요, 왜?

○강민국 위원 3선이나 되는 사람이 왜 그래!

○위원장 윤한홍 잠깐 스톱, 시간 스톱. 잠깐만, 왜냐하면……

○강민국 위원 얘기하고 있는데……

○조승래 위원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강민국 위원 위원장님, 이걸 제지를 시켜 주십시오. 최대한 예우를 갖추려고 하는데 너무하시네.

○위원장 윤한홍 여러분들 증인에 대해서 간사 간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간사가 종합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1분을 더 준 겁니다.

○강민국 위원 얘기 끝나고 말씀하세요, 얘기 끝나고.

○조승래 위원 좀 있으면 치게 생겼네. 좀 있으면 치게 생겼어요.

○강민국 위원 얘기 끝나고 말씀하세요.

○위원장 윤한홍 그리고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얘기 좀 똑바로 하세요.

○강민국 위원 뭐요?

○조승래 위원 왜 이렇게 반말하세요?

○강민국 위원 뭘 반말해요?

○조승래 위원 아까 했어. 한번 속기록 볼까요? 속기록 볼까요?

○강민국 위원 무엇을 봐요, 뭘?

○조승래 위원 속기록 볼까요? 반말하지 마세요.

○강민국 위원 아니, 선수가 초선도 아닌 분이 동료 위원 이야기하는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답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끝나고 나서 말씀하시면 되잖아.

○위원장 윤한홍 조승래 위원님, 이야기 끝나고 하세요.

○조승래 위원 그러면 저한테 발언권 주세요.

○위원장 윤한홍 왜냐하면 여러분들 의사진행발언한 것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간사예요. 그러니까 간사가 이야기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해서 2분을 준 거예요.

○강민국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하는데, 첫째는 우리 정무위만큼은 민생에 집중하자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서만 해도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해서 문다혜 씨, 사위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김혜경 씨 관련해서 35명을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안 된다고 얘기한 겁니다. 민주당도 한 45명 했는데 제가 정말로 정쟁 말고 민생에 집중하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여야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지금 일반증인 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기본적으로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신청하신 분들 사실 한두 명, 많게는 4명, 5명까지 일반증인을 넣어 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여야 간사가 많은 고민을 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남근 위원님이 권익위 잠깐 말씀하셨는데 참여연대 그런 말씀은 잘못된 말씀입니다. ‘참여연대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아마 개인적으로 한 말씀 같은데 권익위나 보훈부도 사실 원래는 합쳐서 하다가 이번에 강준현 간사님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제가 분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금융위·금감원도 원래 합쳐서 하다가 강력하게 민주당이 요구해서 제가 분리를 시켜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장들에게, 기관증인께 물어봐도 충분히 답변이 나올 수 있다.

자,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한 달가량을 해야 되는데 추가 증인이 필요하다면 여야 간사가 추가로 계속 협의해서 증인이나 참고인을 채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뭐 굉장하 제가……

하여튼 다시 개인적으로 조승래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리고 유동수 위원님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하신 종감 증인에 대해서는 그것은 여야 간사가 깊이 숙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보고, 개별적으로 김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OK저축은행 회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한번 추후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종감 때도 충분히 증인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야 간사 간에 협의가 된 일반증인 채택하고, 이것 다 위원님들 내용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유영하 위원님 1분 드리세요.

○柳榮夏 위원 저도 증인 신청한 것 지금 거의 다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런데 간사가 설명을 해서 일응은 수궁이 가는 점도 있고 또 일응은 개인적으로 불만 사항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두 분 간사께서 상의를 하신 게 이번 국감은 정쟁은 피하고 민생에 집중하자 이런 테마로 잡았다 그래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로 더 필요하면 종합국감 때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하나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예의를 못 지키면 그건 결국 저희들 얼굴을 깎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어떤가 싶어서 주제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다음에 존경하는 김재섭 위원님.

○김재섭 위원 김재섭입니다.

저도 간사님께 참 여러 번 항의를 드리고 제가 요구했던 증인분들 좀 받아들여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서 간사님이 설명해 주셨던 내용대로 이번 국감은 그래도 정쟁 빼고 정무위는 정무위답게 좀 해 보자라고 해서 저도 많이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들께서 답답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저도 일응 수궁이 가는 문제들이지만 또 추가적으로 증인을 받겠다고 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총의를 모아서 우리 같이 간사님들께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오히려 드려 보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손을 뚫)

○위원장 윤한홍 아니요, 아까 다 하셨으니까 강준현 간사님.

○강준현 위원 하여튼 이번 우리 정무위 국정감사, 22대 들어와서 처음 하는 국정감사인데요 모쪼록 내실 있는 그런 국정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증인 신청을 많이 하셨는데 그동안에 양당 간사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어찌 됐든 앞으로 권익위가 됐든 보훈부가 됐든 그다음에 금융위나 금감원이나 또 공정위나 등등 해서 여야 간사가 추가로 논의해서 증인 채택할 내용은 협의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 고요.

하나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감에 지금 31번부터 34번이 있는데 이 문제도 제가 볼 때는 아까 존경하는 유동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강민국 간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 네 분은 나중에 같이, 종감할 때는 또 추가 증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했으면 좋겠고요.

하나 당부 말씀은 이번 국감 내용에서 정책질의를 하는데 특히 특정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질의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면서 말씀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다른 추가 사항……

○신장식 위원 확인만 하나……

○권성동 위원 마무리합니다.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하는 게 안 낫겠어요?

○신장식 위원 확인만, 확인만 하나……

○위원장 윤한홍 아니, 아직 추가 시간이 있고 간사들 간에 계속 협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창민 위원 짧게라도 의견 드릴 수 있게 시간을 주십시오.

○권성동 위원 이것 의결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윤한홍 의결하고 의사진행발언 추가로 드릴게요.

○한창민 위원 의결 전에 하고 싶습니다.

○조승래 위원 아니, 의결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한홍 아니, 이것 해 놓고 나서 추가로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조승래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을 일단……

○위원장 윤한홍 그것은 간사들 간에 합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서……

○조승래 위원 은행장을 빼 주세요.

○박상혁 위원 위원장님, 권익위 같은 경우는 둘째 날이기 때문에 오늘 의결해야 됩니다. 정승윤 씨를 일반증인으로 당연히 채택해야지요. 정승윤 씨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위원장 윤한홍 그것은 간사들 간에 다시 의논해 주세요.

○박상혁 위원 아이, 다 열려 있는데……

○위원장 윤한홍 아니, 의논해 주세요.

○한창민 위원 위원장님, 그래도 이 중요한 증인 채택 관련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할 시간을 주셔야지요. 우리 당장 뭐 바쁜 일이 있습니까?

○위원장 윤한홍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간사 오래 해 봤는데, 문재인 정권 시절에 제가 야당 간사였습니다. 그때 제가 여당 위원님들한테 배운 게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일반증인 하지를 못했어요, 여당에서 안 해 줘 가지고. 그 말이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입법부가 행정부 감사하는 게 국정감사지 입법부가 일반 민간인들 불러 놓고, 아까 어떤 분이 ‘조진다’ 그러는데 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민병덕 위원 참고인을 불러야지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한홍 아니,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조승래 위원 아니, 정승윤은 도망간 사람이지요. 다르지요. 우리 기관증인 명단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위원장 윤한홍 오늘 이 부분을 의결하시고, 추가로 강준현 간사님하고 강민국 간사님이 계속 협의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혁 위원 위원장님, 대표적인 게 정승윤이에요. 기관증인에서 도망갔잖아요. 도망간 사람 잡아 와야지요.

○조승래 위원 아니, 기관증인 명단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위원장 윤한홍 그건 추가로 의논하세요. 추가로 의논해서 필요하면……

○한창민 위원 30초씩이라도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윤한홍 필요하면 추가할 부분들은, 간사하고 위원장한테 위임해 주시면 추가할 사람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장식 위원 아니,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을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기관증인은 도망가고 일반증인은 아무도 없고 심지어 참고인도 아무도 없고, 이것 어떻게 해요?

○권성동 위원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신장식 위원 아니, 발언권을 안 주시니까. 발언권을 좀 주세요.

○한창민 위원 발언권 30초씩만 주십시오. 짧게라도 주십시오, 발언권.

○강민국 위원 오늘 의결 안 되면 그냥 이번 국정감사는 기관증인만 합시다. 이거 뭐할 필요 없잖아.

○이강일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 기다리고 있어요.

○위원장 윤한홍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끝내고 마무리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의사진행발언 짧게라도 주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윤한홍 자, 어떻습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가요?

○한창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이의 있다니까요.

○위원장 윤한홍 이의 있어요?

○조승래 위원 이의 있어요.

○한창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이의 있으신 분 손 드시고 이의 없으신 분은 그냥 앉아 계시고……

○조승래 위원 아니, 제가 그래서 말씀을,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7번 증인에 대해서는 이 증인은 의미가 없으니 교체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이 증인을 삭제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윤한홍 삭제를 합시다, 그러면.

○조승래 위원 이 증인을 삭제해 주시고 제가 요청한 KB 회장……

○위원장 윤한홍 그것은 별도로 의논하십시오.

○조승래 위원 회장에 대해서 양 간사가 협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오늘 이재근 행장은 취소하고 그 회장은 두 분이 다시 합의해 주세요. 다시 합의를 하십시오.

○강민국 위원 의논을 할게요.

○강준현 위원 그다음에 중감, 31~34번.

○위원장 윤한홍 31번에서 34번도 추가 합의하세요, 그러면.

○강준현 위원 예.

간사님, 31~34번.

○강민국 위원 예, 의논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오늘 빼고 중감 전에……

○권성동 위원 왜 빼요, 빼기는?

○강민국 위원 아니, 이재근 은행장을 빼 달라는 거잖아요.

○강준현 위원 아니, 하는데요…… 빼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윤한홍 그러니까 이재근 빼고 추가로 회장을 두 분이 합의하시고.

그다음에 31~34번은 추가로 의결하겠습니다, 종감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 이야기시지요?

○강준현 위원 예, 맞습니다.

○한창민 위원 저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을 하게 해 주십시오.

○김남근 위원 권익위에 대해서도, 오늘 이결 의결한 다음에 권익위에 대해서 추후 논의를 해 가지고 오늘이나 내일, 다음 수요일 중에라도 한 번 더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윤한홍 예, 알겠습니다. 의논하십시오.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한창민 위원 아닙니다. 이의 있습니다. 반대토론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1분만 하세요, 한창민 위원님.

○한창민 위원 저는 이번 국감 채택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한 명 한 명 뭐 소원 수리합니까? 이걸 최소한의 증인 채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최대한의 증인 채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조금 전에 강민국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쟁 사안이 아니라 민생국감을 하자. 그러면 민생국감에 필요한 증인들은 다 받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걸 무슨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국조실에 한국전력 사장 요청했습니다. 이것도 노동·인권 문제하고 다 연결되고 국조실에서 필요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빠졌습니까? 결국 증인 채택의 원칙이 뭐냐는 거예요. 이런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한 명 한 명 위원님들이 지금 ‘이 증인 필요하다, 필요하다, 필요하다’ 한 것 다 일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이게 정쟁 사안이 아닌 민생 사안이라면 다 받아 주십시오. 그래야지 국감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약속을 해 주시면 저도 이번 국감 증인 채택은 하고 추가 협의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 안 해 주시면 저는 끝까지 반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오늘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KB국민은행장은 정리한 대로 다시 협의해 주시고, 종감 사항은 추가로 의결하고 오늘 의결에는 빠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한창민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한홍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한창민 위원 도대체 그 정도 약속도 못 받아 주십니까?

○권성동 위원 왜 소리 질러요!

○위원장 윤한홍 추가되는 일반증인 및……

○한창민 위원 (자리에서 일어서며)

이 정도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까?

○권성동 위원 (자리에서 일어서며)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위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답답해 죽겠네, 진짜.

○한창민 위원 이게 내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 아닙니까! 민생국감 하자면서요. 그 정도도 못 받아 줍니까?

○강민국 위원 한창민 위원님!

○위원장 윤한홍 자, 앉으세요, 위원님. 앉으세요.

○한창민 위원 이걸 소리 지른다고 하는 게 그게 이상한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지금 정쟁하려고 증인 채택했습니까?

○권성동 위원 한 위원님, 뜻이 관철 안 된다고……

○한창민 위원 제 뜻이 아니라…… 이걸 개인의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감을 왜 하냐고요.

○위원장 윤한홍 여기 국민 대표 다 앉아 있어요.

○강민국 위원 앉아요, 앉아요.

○위원장 윤한홍 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추가되는 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간사 위원 간의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 날짜를 따로 정하여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일반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27인)

성명	직업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비고
김재현	당근마켓 대표이사	10. 8.(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	10. 10.(목) 금융위원회	
이석용	NH농협은행 은행장		
정길호	OK저축은행 대표이사		
이상돈	연합자산관리 대표이사		
피터 알텐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10. 17.(목) 금융감독원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이사		
이시준	큐텐그룹 재무본부장		
김민철	두산그룹 사장(재무담당)		
강동수	SK이노베이션 부사장(전략재무)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이사		
신이한	알리페이코리아 대표		

성명	직업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비고
김동관	(주)한화그룹 전략부문 대표이사 부회장	10. 21.(월) 공정거래위원회	
피터 알텐우드	애플코리아 대표이사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		
김태영	웹젠 대표이사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이사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이사		
최정민	천재교육 대표이사		
김동전	맘스터치앤컴퍼니 대표		
정몽원	HL그룹 회장		
곽근엽	아디다스코리아 대표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대표		
이건영	대한제분 대표이사		

참고인(2인)

성명	직업	출석일 및 관련 피감기관	비고
이상규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10. 7.(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김정중	아이다스 전국점주협의회장	10. 21.(월) 공정거래위원회	

○출석 위원(23인)

강민국 강준현 강훈식 권성동 김남근 김병기 김상훈 김용만 김재섭 김현정
민병덕 박상혁 신장식 유동수 유영하 윤한홍 이강일 이인영 이정문 이현승
조승래 천준호 한창민

○청가 위원(1인)

강명구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전문위원 황승기
전문위원 최기도